

벤처기업 직지코리아

신문발행·문화상품 제작

직지찾기 '도전과 창조'

전통문화를 오늘에 되살려 생활 속에 접목시키는 일. 문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과제다.

최근 이 같은 시대적 과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문화벤처로서의 가능성을 실현하고 있는 곳이 있다.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확대하고, 직지를 문화상품으로 개발하는 벤처기업 직지코리아(대표 정덕형)가 인터넷의 바다에 뜻을 올린 것이다.(www.chikchi.co.kr)



◇ 문화벤처기업 직지코리아 메인 홈페이지.



◇ 직지와 관련된 자료들을 정리 제공하는 직지디지털 연구소.



◇ 직지 소재의 문화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직지아트.

축해 놓고, 직지 CD롬, 직지문화상품 개발, 직지 애니메이션 제작 등 현대적인 방법으로 직지를 일반 대중에 알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직지디지털연구소는 직지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정리해 직지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터넷 직지신문에서는 직지와 관련한 각종 소식을 소개하고 있다. 직지아트

는 직지를 소재로 한 다양한 문화상품의 개발과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도하게 된

다. 이미 5월 열린 제1회 충북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직지디지털연구소가 개발한 직지문화상품이 은상을 수상했으며, 직지 머그컵, 티셔츠, 배지(휘장), 버튼, 파일 등 7종 12품목이 선보이고 있다.

또한 현대인들이 가장 쉽게 직지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애니메이션을 택해 예술기획 아트스와 함께 직지 애니메이션도 제작 중이다. 현재 50% 정도 작업이 진척된 이 애니메이션에는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직지, 불교 선어록으로서의 직

지, 문화재로서의 직지 등 다양한 모습을 포괄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자 자랑스런 불교문화인 직지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이 너무 미약하고, 직지의 잠재력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정씨는 "직지 문화상품 개발을 통해 한국의 문화, 동양의 정신으로서의 직지의 우수성을 모든 대중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최승희 보살춤 사진으로 본다



호암아트홀

7월2일까지

◇ 1939년 프랑스 공연 당시 보살춤을 추는 최승희 모습.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무용가로 평가받는 '최승희(1911~?) 사진전'이 9일부터 7월 2일까지 서울 호암아트홀 로비에서 열린다.

지난 10년간 최승희 연구에 몰두해 온 정병호 교수(중흥대)가 그동안 수집한 최승희 사진 500장 가운데 일부를 처음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정 교수는 중화생 시절, 당시 최고의 스타였던 최승희 무용 공연장을 접한 이후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 등지를 누비며 최승희 자료 사진을 모아왔다. 전시되는 사진은 숙명여고 시절 옛날 모습에서부터 일본체류 시절, 세계 순회공연 때, 일복 후 등 최승희가 살아온 삶을 굾은 마디별

로 분류해 무용가 최승희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꾸렸다. 특히 이번엔 공개되는 사진 중에는 정교수와 절친한 김병철 남산예술원장이 고풍품점에서 발견한 1939년 프랑스 파리 공연 당시 보살춤을 추는 최승희 모습이 원판으로 공개된다.

열 여섯 나이에 일본에서 유학한 최승희는 20대에 이미 한국과 일본의 최고 무용수로 자리 잡았다. 30년대 이후에는 한국 춤을 중심으로 동양무용의 독특한 세계를 발전시킨 '보살춤' '초립춤' 등을 선보이며 30년대 말부터 미주, 유럽, 중국, 러시아에서 순회공연을 가졌다.

이은자 기자

"미술문화 대중화에 노력"

문화집단 '숯대' 대표 김원열씨

"재능있는 젊은 작가를 발굴해 선보이고, 다양한 기회 전시로 보다 많은 대중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생각입니다."



이은자 기자

문화집단 숯대 대표 김원열 씨는 말한다. 숯대는 미술작가를 위한 전문 문화 사업체다.

한국화 서양화 문인화 서예 조소 관화 공예 사진 영상설치미술 등 여러 분야 작가의 미술작품을 유치해 서울 은현공미술관과 경기 포천 취용예술관을 무료로 대관, 전시하는 일을 한다. 작품관리는 물론, 전시홍보와 국내 최초로 미술인 지원 대출제도까지 도입해 실력있는 미술인을 발굴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술문화의 대중화, 저변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얻는 10%의 이윤은 문화운동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재투자할 것"이라는 김 씨는 "특히 우리 문화의 중심에 있는 특색있는 불교 미술작품의 전시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집단 숯대는 앞으로 인터넷 가상화랑 개설, 미술 무료 강연회 및 실습, 비영리 무지 발행 등의 사업도 전개할 계획이며, 현재 신인작가의 전시 모집과 작가회원, 후원회원 신청을 받고 있다. (02)2635-1338

'찾아가는 박물관'

6월엔 임실·양구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관광부의 찾아가는 문화활동 2000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찾아가는 박물관' 6월 전시를 전북 임실 동중학교(6.13-6.15), 강원 양구 문화체육회관(6.20-6.21)에서 각각 갖는다.

이번 전시에는 백제의 고도인 부여 능산리에서 출토된 금동대향로를 비롯, 신라시대의 적석목곽분 중에서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천마총 출토품과 토우 등 55점을 복제, 전시한다.

또 지난해 특별전시회로 인기를 끌었던 '아름다운 금강산전'에서 선을 보인 일제시대 금강산을 배경으로 촬영한 유점사와 장안사의 유리관과 사진패널 43점과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시대별 문화를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제작한 만화로 보는 박물관 패널 31점도 함께 전시된다.

이밖에 용의 해 상징 용문양 스탬프 찍어가기, 용·봉황 전통 탁본 시연 등 전통문화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관람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02)398-5086

이은자 기자

화해

김영동씨 새음반

각 종교예식곡 조화

연이어 울리는 법고소리에 잔잔한 카톨릭 미사음악, 거기에 산사의 스님이 부르는 종성곡에 이르기까지 불교와 기독교, 이슬람과 천주교의 종교음악을 매개로 화합을 노란 음반이 나왔다.

작곡가 김영동 씨가 최근 발표한 새음반 '화해(웅진미디어)'가 바로 그것이다. 종교와 인간, 그리고 자연의 화합을 주제로 한 이 음반은 각 종교의 예식곡과 자연음을 조화시켜 또하나의 음악을 탄생시켰다.

요즘 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퓨전음악이다. 이 음반을 통해 김 씨는 동서양 정신세계의 융합을 시도하고, 인간과 만물의 상생과 조화를 표현하려 했다. 하늘소리, 화해, 영혼의 피리, 고해 등 9곡을 수록한 이 음반에는 전통 국악기 외에 법고와 범종, 인도의 지타르, 아메리카 인디언 피리 등 각기 개성이 독특한 다양한 악기 음이 녹아있다.

이은자 기자

귀일스님 기와그림 홈페이지 개설

www.kiwart.com



옛 기와에 도깨비 그림을 그려 넣은 귀일 스님(봉정사 지조암)의 작품을 인터넷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스님은 한국민예품연구회와 공동으로 최근 귀면(鬼面瓦)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했다.(www.kiwart.com)

스님은 크고 작은 기와, 깨어진 기와, 수기와, 암기와 등 다양한 형태의 기와 모양을 그대로 살려 그 위에 그린 그림으로 특허청에 의장등록까지 마쳤다. 귀면은 문화상품으로 판매도 하는데 5만원 정도의 소품에서부터 금단청을 사용한 고가의 작품까지 다양하다.

대구=이윤호 기자

불교방송 '최재원의 뮤직토크'

톡톡튀는 진행 N세대 '솔깃'



◇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불교방송 '최재원의 뮤직토크'.

"이소은의 '기적'을 신장한 신재의 김우영 군. 자 지금 신나는 음악이 흘러 나옵니다. 녹음준비하시고 일요 법회 때 친구들에게 자랑하세요."

최신 유행음악을 편성해 심야시간대 청소년불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불교방송 '최재원의 뮤직토크'(담양PD 안희경, 밤 11시10분~새벽 1시).

인기 탤런트 최재원의 토크튀는 말솜씨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불교방송의 타 프로그램에 비해 젊은 불자들의 참여를 대폭 향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인터넷사이트 소개', '동화 속의 문화' 등 다양한 코너 운영 등 파격적인 진행이 청소년 불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다. 이 가운데 특히 '사랑을 나누는 장터' 코너는 인기 연예인의 애장품을 경매 형식으로 팔아, 그 수익금을 불우 이웃을 위한 자비행 실천에 사용토록 유도하고 있

다. 하지만 가벼운 재미만을 추구하는 것이 종교방송인 불교방송의 이미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최 씨는 "가볍다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틀림이 불교 교양서적을 정독하며 보다 알찬 '즐거움 음악과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불교사상을 전달하는 방송도 교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제9회 행원문화상 수상자 추천 받습니다.

본 재단에서는 매년 불교 문화 발전을 위하여 훌륭한 업적을 이룩하신 분들을 찾아 포상하고 있으나 다음 요령에 따라 많이 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상 부문

구분	대 상	인원	상 규
역경상	불인을 국역하거나 역경사업에 이바지 한 분	1명	300만원
문학상	불교사상을 토대로한 시, 소설, 극문학(희곡, 방송극 시나리오 등)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분	1명	300만원
예술상	불교사상을 토대로 한 예술(음악, 미술, 연극, 무용)분야에서 업적을 이룬 분 (서화부분 제외)	1명	300만원
대중예술상	방송, 연예활동 등 통해 불교사상을 선양 홍보하고 대중교화(포교)에 이바지 한 분	1명	300만원

2. 구비 서류 ① 추천서(지정양식) 1통
 ② 공적서(구체적 내용) 1통
 ③ 이력서(명함판 사진 3장) 1통
 ④ 공적증빙자료(최근 2년 이내 실적물) 1통

3. 추천 기한: 2000년 6월 30일

4. 심사 및 발표: 본 재단에서는 위촉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개별통지 및 불교관계 신문 발표

5. 시상 일: 2000년 9월 29일 금요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재단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56번지 중앙승가대대학 기흥실 (우편번호 136-075)

☎ 02) 926-4377 (교환 302) / FAX 02) 921-9721

2000년 6월 7일

社 團 法 人 行 願 文 化 財 團 理 事 長 朱 永 云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의 명향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

- 효능: 화염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항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계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生氣香 ...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 당뇨·중풍·백·간·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 관불의식, 관육의식 (죽음 재개함) 있습니다.

계좌번호: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 협 071-02-257470

예 금 주: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

☎ 02) 3446-8148, (02) 3446-5889

공급자: 석씨향방